

# 회 의 록

<b>회의명</b>	2025년도 제3차 상명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b>일시</b>	2025. 1.13.(월) 14:00 ~ 16:40		
<b>장소</b>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3층 317호		
<b>참석위원</b>	김상조, 박소영, 김길환, 은성민, 강윤지, 조혜영, 이태희	<b>불참위원</b>	김주은
<b>참고인</b>	기획조정처 김동근 처장, 기획예산팀 정윤상 팀장, 기획예산팀 김용균 차장		
<b>안건</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안 심의</li> <li>2. 2025학년도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안 심의</li> <li>3. 2025학년도 기타 등록금(수업료) 및 수강료 책정안 심의</li> <li>4. 상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수강료 책정안 심의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li> </ol>		
<b>심의내용</b>	<p>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의를 선언함.</p> <p>간사가 김주은 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였고, 3차 회의에 대해 모든 권한을 은성민 위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했음을 알림.</p> <p>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함.</p> <p>■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의 책정 배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요인 - 대학 재정 운영의 한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물가상승률 고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66%</li> <li>2) 2025학년도 법정 등록금 인상한도 5.49% 이하 고려</li> <li>3) 연도별 소비자물가 대비 학부등록금 책정(2012~2024) 현황</li> <li>4) 입학금 감축 현황(2017~2024)</li> </ol> </li> <li>나) 대학 예산 현황 고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5학년도 본예산 단위부서 요구 현황</li> <li>2) 2025학년도 본예산 단위부서 요구 현황에 따른 예산 부족분</li> </ol> </li> </ol> </li> <li>2.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 전달</li> </ol> <p>안건1.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안 심의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 학생 정원조정 및 입학정원 현황</li> </ol>		

2. 자유전공학부 등록금 책정(안)
3. 2025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책정(안)
4.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 제한에 따른 보전 방안
  - 가) 기존 장학기금 5억원 및 양 캠퍼스의 학생처에서 제시한 '학생 지원 강화 및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 관련 예산' 약 6.4억원을 최대 예산에 배정할 예정임.
  - 나) 향후 필요시 추가로 장학기금(교직원장학기금: 교수/직원 등이 학생장학금 등 학생의 후생복지를 위해 출자)의 인출을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하여 논의할 예정임.

안건2. 2025학년도 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안 심의

1. 2025학년도 대학원 입학금 책정(안)
2. 2025학년도 대학원 수업료 책정(안)

안건3. 2025학년도 기타 등록금(수업료) 및 수강료 책정안 심의

1. 계절수업 수강료 책정(안)
2.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수업료 책정(안)
3. 시간제등록생 수업료 적용사항

안건4. 상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수강료 책정안 심의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 논의

교직원 위원이 인상을 구분과 전체평균등록금 인상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대표적인 예로 학생정원의 이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자유전공학부대학이 새로 생기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연증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답변함.

자유전공학부대학이 진입 불가능한 계열이 어디인가? 사범계열은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맞다. 다만, 사범계열에서 수학기열을 제외하고는 제일 등록금이 낮은 인문계열이므로 수학기열만을 진입 불가능한 계열로 표기하였다고 답변함.

자유전공학부대학의 학생들이 전공을 늦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교육부의 원칙은 완전히 자율적인 학생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도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맞도록 전공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 창구와 예산, 기타 지원사항들을 준비해 두고 있음.

교직원 위원이 등록금의 차이 때문에 인문계의 전공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공학계의 전공으로 전과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자유전공학부의 등록금 책정에 따라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교직원 위원이 특히나 천안캠퍼스 같은 경우 자유전공학부대학의 등록금은 인문 다음으로 낮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아직까지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통계나 정확히 산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 쪽의 계열에 치우쳐서 자유전공학부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보다는 진입 가능한 계열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하다고 답변함.

외부위원이 자유전공학부대학 등록금과 타 학과의 등록금이 차이가 날 경우 그 차이가 전과 또는 기타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장학금 관련 기타 예산 상황을 봤을 때 등록금의 차이와 이로 인한 학과의 선택과의 상관관계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위원장이 언론 등서 발표된 타 대학의 등록금 인상분에 대해서 사례를 언급하고 위원들의 생각을 질의함.

학생위원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보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장학기금 5억원, 학생지원 강화 등의 예산 6.4억원과 향후 필요시 추가로 장학기금(예시: 교직원장학기금) 등의 인출을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임.

교직원위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이 과거부터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국가장학금 2유형은 등록금의 인상이 없고, 전년도 교내장학금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답변함.

외부위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은 20억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답변함.

학생위원은 등록금이 인상되는데 장학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냄.

외부위원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왜 지급하지 않는가를 질문함.

교직원위원회는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행한 정책으로 생각 됨.

교직원위원회는 학교발전 또는 후세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등록금을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음.

외부위원회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예를 들어 5%)에 따라 국가장학금 2유형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학생위원회는 작년에 대학원은 4%를 올렸는데, 또 올리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함.

위원장이 타 대학과의 비교와 함께 사례를 많이 참고하여 학교도 결정을 하는 것임을 언급함.

외부위원회는 이번에 5.2% 정도의 인상분을 통해 인상 후 추후 그 부분을 상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교직원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최근 3년 10%정도 되고 있음. 등록금을 자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5%정도를 올리고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쇄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함. 또한, 국가장학금 2유형의 보전 부분이 어느정도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함.

교직원위원회는 5.2%의 수준으로 인상을 하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형태의 등록금 인상을 제안함.

교직원위원회는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대학에서 장학금을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학으로 보이므로, 이번에는 5% 범위 정도의 인상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고 언급함.

교직원위원회는 국가장학금 2유형 보전을 조건으로 하는 심의결정을 할 수 있는가?

교직원위원회가 대학원 수업료의 경우 학부와의 등록금 인상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에 큰 등록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교직원위원회가 0.2%의 등록금 인상이 있다면, 총 학교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은 약 등록금 수입이 약 2억 정도 올라간다고 답변함.

교직원위원회가 5% 이상을 인상하고 추가된 예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투여되는 예산에 편성함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2025학년도 예산편성의 항목에 대해 전체적으로 참고자료로 설명함.

위원장이 2025학년도 본예산 주요 항목별의 수입은 등록금 인상률을 얼마 적용한 것인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동결로 책정한 것이라고 답변함.

위원장이 수입대비 지출이 약 11.07% 가량 많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해도 지출예산이 모자람. 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함.

교직원위원이 지출을 줄이는 데에는 사실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부분에서 수입을 늘리고, 지출부분에서 어느정도 감액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모든 위원들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약 2%로 합의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함.

학생위원이 우리 대학교 등록금이 서울 시내 대학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서울 지역 18개 대학 중에서 약 13위 내외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변함.

교직원위원이 안건3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모든 위원이 구두로 안건3에 대해서는 회의자료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학생위원이 우리 대학의 등록금과 비등록금 비중이 적절한 것인지를 질의함. 대학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대학인증평가 부분에서 우리 대학은 등록금과 비등록금의 비율 부분은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학생위원이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지출예산이 모자르는데, 이를 보전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별도의 확정된 추가예산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음. 기금의 활용 또는 지출의 삭감을 통해 조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

교직원위원이 우리 대학은 국고사업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은 만큼 그 부분에서 최대한 예산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는 약 반 정도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함.

학생위원이 만약에 2026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한다면 국가장학금 2유

	<p>형이 100% 지급될 수 있는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우리 대학은 한 번도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제한이 된 적이 없으므로 현재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답변함.</p> <p>외부위원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타대학도 다 못 받으면, 국가장학금 예산이 남는 것 아닌지,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 않을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 차장)이 그에 대한 방안은 나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p> <p>위원장이 학부는 5%미만의 등록금 인상, 대학원은 2%정도의 등록금 인상이 어떤지를 제안함.</p> <p>학생위원이 인상분은 5%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함.</p> <p>참고인(기획조정처장)이 단순히 등록금 인상률을 숫자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대학 재정의 한계를 타계하고 학생들에게도 실질적 도움과 혜택이 되도록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지원 강화 및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 관련 예산'을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p> <p>마찬가지로, 장학금 보전에 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확한 보전 액수를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특히 학생위원이 제기해주신 강력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조정처장인 제가 우리 대학의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장학기금 활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다.</p> <p>학생위원이 등록금 인상이 결정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그 이유 또는 인상분의 사용처 등에 대한 공식적인 공지가 차후 있는지를 질의함. 참고인(기획예산팀장)이 추후 학생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p> <p>교직원 위원이 5%를 넘기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함.</p> <p>전원 심의결과에 동의, 서명 후 위원장이 폐의를 선언함.</p>
<p><b>주요 심의 결과</b></p>	<p>학부 등록금은 4.95% 인상, 대학원 수업료는 2% 인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전공학부 신입생 등록금: 캠퍼스별 진입 선택 가능한 계열의 평균으로 최초 산정(등록금 인상률 동일 적용)</li> <li>- 대학원 입학금, 기타 등록금(수업료) 및 수강료는 동결함.</li> </ul>
<p><b>작성자</b></p>	<p>이태희(간사)</p>

2025. 1. 13.

위원(장) 김 상 조 (인/서명)

김상조

위 원 박 소 영

박소영

위 원 김 길 환 (인/서명)

김길환

위 원 은 성 민 (인/서명)

은성민

위 원 김 주 은 (인/서명)

김주은

위 원 강 윤 지 (인/서명)

강윤지

위 원 조 혜 영

조혜영

위원(간사) 이 태 희

이태희

# 위 임 장

(위임인)

소 속 : 상명대학교 경영인공학과

직급(위) : 대학총회 평의원

성 명 : 김주은

(수임인)

소 속 : 식품영양학과

직급(위) : 문화예술대학 학생회장

성 명 : 은성민

상기 위임인은 상명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위원으로서 2025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수임인에게 회의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5년 1월 9일

위임인 : 김주은 (인) 

상명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